

보물섬 '남해'

해안도로 따라 가을이 최르르~



보리암 낙산사

보리암에서 내려다 본 디도해

독일마을

항구

가을이 물들어가는 산 그리고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로의 여행. 아름다운 자연과 풍성한 해안의 맛을 찾아 남해로 떠나보자. 구불구불 남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달리는 산길에서 가을 낭만을 속속 담는다.

새로운 기운이 피어나는 봄 산, 생기는 넘치는 여름 산도 좋지만 찬찬히 사색을 할 수 있는 가을의 산이 참 매력적이다.

아직까지는 따가운 햇살과 반팔 차림이 어색하지 않은 가을의 공기, 들성들성 빨갛게 물든 나뭇잎들이 살랑거리는 남해 금산으로 떠났다.

보물섬 남해 그리고 금산에 보리암이 보물같이 박혀있다.

산 중턱 주차장에 차를 대고 본격적인 가을 걸음에 나선다. 쉽게 걸어 올라가는 다른 암자 들을 생각했다면 버거울 수도 있는 급경사가

의 3대 기도처로도 유명하다.

바다를 향해 지긋하게 서있는 해수관음보살에게 기도를 하면 소원을 이뤄준다는 얘기가 있다고 한다.

고려말 전국 명산을 찾아다니던 이성계가 금산에서 백일기도를 올린 뒤 조선을 건국하게 됐다는 전설도 담겨 있는 곳이다. 이성계가 보은으로 온 산을 비단으로 돌려주겠다고 '비단 금(錦)'자를 내려 금산이라 부르게 됐다고 한다.

이런저런 사연 때문인지 경일임에도 가족들의 안경을 비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소리가 은은하게 보리암을 채우고 있었다.

만만치 않은 산행길이 끝나고 가볍게 길을 걸으며 한숨 돌릴 수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겨 보자.

남해를 내려다보고 뾰족하게 서있는 그림같은 건물들, 햇살처럼 고운 주황빛 지붕집들이 웅기종기 자리하고 있는 곳, 독일마을이다.

간혹사와 광부로 조국을 떠나 독일로 갔던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다. 남해에 꾸려진 독일마을이 이들의 새로운 터전이자 남해의 명소가 됐다.

붉은 지붕과 하얀 벽 그리고 파란 바다가 어우러진 마을이다. 화려한 볼거리는 없지만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며 차 한잔 하기 좋은 곳이다.

배우 한예슬의 특목 튀는 매력이 돋보였던 드라마 '환상의 커플' 촬영지였던 '칠수네집'도 마을 한 곳을 차지하고 있다.

가을을 맞은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거러며 분위기를 더하고 있는 이곳, 그냥 가기 아쉽다면 독일마을 민박집에서 하룻밤 묵으며 남해의 고요하고 맑은 밤하늘까지 마음에 담아보자.

원예전문가들이 모여 조성한 원예예술촌과 폐교를 개조해 꾸민 문화·예술공간도 해오름 예술촌도 독일마을과 맞닿아있다.

남해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멸치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멸치를 매콤하게 졸여서 또는 새콤하게 절여서 먹을 수 있다. 남해 어느

식당을 가나 눈에 띄는 메뉴가 있다. 생소한 이름 멸치쌈밥. 간단히 말하자면 멸치조림을 싱싱한 상추와 깻잎에 싸서 먹는 것이다. 얼큰하게 졸여진 국물과 굵은 멸치가 고소하니 어울린다. 여기에 푸릇한 채소가 곁들여져서 밥이 금세 비워진다.

멸치회와 갈치회도 유명하다. 흔하게 맛볼 수 없는 회, 새콤하게 무침으로 먹을 수 있다. 남해 어관장 인근에서 신선한 멸치회와 갈치회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어관장 인근 식당에서 남해의 별미를 맛본 뒤 호젓하게 항구 산책을 해보자.

항구에 기대어 쉬고 있는 배들의 평온함, 만선의 꿈을 담고 바다를 향해 달려나가는 이들의 뒷모습, 전통 방식의 갈치잡이를 위해 대나무 낚싯대를 손질하는 손길 등 또 다른 풍경이 기다리고 있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성계 기도했다던 보리암 오르면
가을산 물들고 다도해는 울망줄망
이국의 지붕들 웅기종기 '독일마을'
눈부신 풍광 구석구석 자연 그대로

이여진다.

1km 가량 나무 숲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보물같은 절경이 기다리고 있다. 남해의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라본다. 시원해진 가슴을 안고 기암괴석을 향해 걸음을 재촉한다.

위태위태 금방이라도 쿵하는 소리와 함께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바위가 바위 위에 층층히 앉아 보리암을 둘러 안고 있다. 절벽을 따라 보광전, 간성각, 산신각, 범종각, 요사체가 아담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기암괴석으로 알려진 보리암은 낙산사 흥련암, 강화도 보문사와 함께 우리나라 관음보살



멸치쌈밥



갈치회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